



제주 해안경계 '3중 감시체계' 도입

경찰, 중국인 고무보트 밀입국 계기 경계태세 강화
인력 2배 증원·최첨단 탐지 장비와 시설 등 보강
"해안경비단 역량 높여 밀입국 등 침투 차단 총력"

제주 경찰이 지난 9월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 해안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고 초동 대응도 기존 상황 대기에서 감시와 수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해안경비단의 업무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조직·인력 조정, 레이더 등 장비 운용역량 향상, 초소시설 활용 등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해 역점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기계, 사람, 시설 등 3중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우선 레이더 전파탐지인력을 1.5배 이상 즉시 증원하고 내년 초에는 2배까지 늘리는 등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TOD(열영상 탐지장비) 탐지 업무를 도내 전역에 배치된 해안경비대 거점소에서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TOD는 인체의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초동 대응부대

인 1·2 해안경비대의 역할을 기존의 '상황 대기'에서 '감시와 수색'으로 전환하고 ▶ 24시간 TOD 모니터링 ▶ 취약시간대 인력 집중 운영 ▶ 해안가·포구 등 취약지 수색 및 야간 가시적 순찰 등 인적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은 기존의 해안초소를 재정비해 주야간 수색활동 시 거점장소로 적극 사용하고, 야간 탐지등 운영과 함께 최첨단 장비인 이동식 TOD를 초소에 전방 배치하는 등 시설에 의한 감시를 통해 경계 역량을 제고한다.

해경 및 해병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은 이들 유관기관과 연합 훈련을 비롯해 상황 발생 시 입체적 대응 및 정보 공

유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탐지·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군 위탁·조방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양 안보의 공동책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의 해안경계 자동화 시스템은 비교적 최근에 구축돼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지만, 기계적 감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적·시설적 감시 역량을 함께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오후 중국인 6명(남성 5·여성 1)이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다음날인 8일 오전 한경면 해안가까지 440km를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다. 불법 취업 목적으로 밀입국한 이들은 도주나 허물에 해경에 검거됐다. 백금탁기자

낚시어선 안전점검 강화 서귀포시, 구명장비 비치 등

서귀포시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 출입항 신고와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해경·해양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자체화 및 금지 안내를 강화한다. 낚시어선뿐 아니라 관내 어선에 대해서도 기관·전기·통신,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비 점검을 병행해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부종해 시 해양수산과장은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급변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과 낚시객들도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했다. 문미숙기자



날씨는 추워도…김 매는 농촌 강풍이 몰아친 4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숨진 쿠팡 기사 음주운전 정황 없어"

경찰, 배송 중 사고 조사 결과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쿠팡 배송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 경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

이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새벽 2시6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사거리에서 쿠팡 배송기사 고(故) 오승용 씨가 물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2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오씨의 죽음을 두고 유족과 택배 노조 측은 '과로사'를 주장했고, 택배 영업점 측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신저 당사자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음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유리기자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2029년 준공

510억 투입해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조성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공사가 추가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 을 받고 있다. 이에 착공시점이 이르면 내년 말 가능하고, 준공 시점은 당초 2030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 조감도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증액이 최근 확정되면 서 착공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7년 초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기존 409억원에서 건축비 상승 등으로 510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비 증액으로 국가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친 상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조달청 검토를 비롯해 3개월가량의 입찰기간 등을 거치다보면 착공시점은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27년 초로 예상된다"며 "준공시점도

당초 2030년보다 앞당겨진 2029년 말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재부의 '아름다운 공공 청사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각종 시설을 노후화와 사무 공간 부족 등으로 1988년 신축된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청사를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재건축 건물의 최고 높이는 29.20m, 건축면적은 3147.27m²(약 954평·전체 면적의 13% 수준), 연면적은 1만5327.90m²다. 백금탁기자

밤길 보행안전 걱정되던 도로 밝아졌다

제주시, 월랑로4길 등 3개 구간 조명시설 개선

제주시는 도로 조명시설이 부족해 밤길 보행안전과 우려가 제기돼온 '노형동 상권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에도 중점을 뒀다. 조명 디자인은 제주 전통 종이 예술인 '기메'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했고, 주민설명회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주시는 "이번 도로조명 시설

개선으로 해당 지역의 교통·보행 안전이 강화됐다"고 했다. 문미숙기자

카지노서 1500만원 금품 든 가방 훔친 중국인 구속

카지노에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모 카지노에서 또 다른 중국인 손님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가방에는 한국 돈과 중국 돈, 스마트폰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방을 훔쳐 도주한 끝에 지난달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제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초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유리기자 glassy38@halla.com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율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